第284回國會
(定期會)

國防委員會會議錄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
(임 시 회 의 록)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9月23日(水)

場 所 國防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방위사업청 소관

審査된案件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1
   가. 방위사업청 소관

(09시33분 개의)

○小委員長 劉承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방위사업청 소관

○小委員長 劉承旼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시간관계로 심사하지 못한 방사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방사청 차장님과 간부님들께 어제 3시간 넘도록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정족수가 안 되어 가지고 오늘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방위사업청 차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경제 여건 및 상황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의 이월,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해 주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감사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의하겠습니다.

15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사자료를 보시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방사청 의견 듣고 대략 의견을 정리해서 넘어가고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 관한 결정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먼저 첫 번째 '미수납 과다현상 해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페이지 미수납 과다현상 해소 문제입니다.

08년도에 미수납액이 160억 원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그런데 재력 부족이나 거소 불명과 같은 이러한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미수납 규모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거 뭐 매년 반복 지적되는 겁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번 국외사업관리요원 운용기준 설정!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국외사업관리요원 파견이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한 기준 없이 운용되고 있어서, 현재 28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 관련 예산이 약 22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파견국가가 미국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에 상주 중인 군수무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리고 파견 여부 내지 규모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부분은 과거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최근 3년차는 없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저도 이거 지적된 걸 못 봤는데 사실 늘 마음에는 두고 있던 이슈인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표 위원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한번……

○안규백 위원 그렇죠. 일단 우리 청장님 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사업관리요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사업 관련된 생산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그다음에 형상 변경을 승인하고 이렇게 현장업무하고 밀착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무관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요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관리요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를 하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좀 과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EX사업을 하면서 이미 승인됐던 걸 일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지적된 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 사람들이 해외에 파견된 무관하고는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사업관리요원들은 그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생산공장에서 옆에 있으면서 직접 밀착해 가지고 매일 일어나는 걸 현장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무관이 할 수는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22억 6000만 원은 이 사람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小委員長 劉承旼 인건비 제외죠? 이 사람들이 방사청 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제외죠?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제외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22억 6000만 원이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쓰는, 뭡니까? 그럼 인건비 제외하고 활동……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파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생활비, 주택수당 뭐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생활비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자기 급여 여기서 받던 것은 그대로 받고 거기 가서 생활비 뭐 이런 거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거의 1억 가까이 지급되네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국외파견자 나가는 기준하고 똑같이 다른 어떤 사업관리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근무하는 요원들……

○小委員長 劉承旼 무관들하고 비슷합니까? 무관의 기준으로 줍니까, 돈을?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 부분은……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무관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수준에 의해서 줍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무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준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같은 직급이면 똑같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예, 그렇습니다. 주택수당은 훨씬 적게 주고요.

○小委員長 劉承旼 예?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수당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수당 표 같은 게 있어요?

○안규백 위원 아니, 방사청에서 해외하고 계약한 나라들이 터키나 독일이나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미국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주로 EX사업, F-15K사업 그리고 독일잠수함사업 이 3개가 큰 사업이니까 거기에 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도 KAI라든지 이런 데 현장 요원들이 품보 요원으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군수무관 요원으로는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주로 수리부속이라든지 현재 FMS에서 관련 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품보 요원……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 직원이 해외에 나갈 때, 예컨대 록히드마틴에서 우리가 뭘 구매한다 이러면 록히드마틴의 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러지 않고……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전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예.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이 사업관리자 파견비를 따로 별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小委員長 劉承旼 국내 방산업체 돈을 받는 경우도 전혀 없고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예,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기구매 할 때 그중에 조건을 달아 가지고 방사청 직원이 그 돈으로 연수를 가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절충교역을 해 가지고 일부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때……

○小委員長 劉承旼 지금 그렇게 절충교역의 자금 중의 일부로 해외에 나가 있는 방사청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거는 지금 사업관리요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그거는 다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 양반들은 나가서 뭐 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그쪽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술 부분 아니면 교육 부분을 그쪽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것도 방사청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업관리요원은 전액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절충교역의 자금 중의 일부 그거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나간 사람이 대충 몇 명쯤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절충교역이, 무기체계 구매를 하면서 30% 이상이 충족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대충 얼마쯤 됩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획득기획국장입니다.

절충교역은 대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정비기술이랄지 그런 기술 연수를 위해서 그 해당 업체에 연수를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서……

○小委員長 劉承旼 대충 몇 명이나 되냐니까 자꾸 딴……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그 인원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방사청이 그렇게 나가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묻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시고……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나가는 게 2주 내지 3주 그러한 짧은 기간의 연수를 받기 때문에 그 인원이……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몇 명쯤 나갔느냐고요. 1년에 몇 명 나갔다고 하는 게 뭐가 나와

야지 말이 되지, 어떻게 대답을 못 하세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방사청 요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각 군의 정비요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전체 집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 요원은 아무도 안 나갑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주로 각 군, ADD, 기품원도 어쩔 때 나가고……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전부 사업단, 우리 IPT에서 해서……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방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러니까 그 현황이 종합된 게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안규백 위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방사청 소속으로 됩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단기 교육이기 때문에 본래 소속 부서로 해서 갑니다. 하는데, 대개 사업당 2, 3주에서 길어야 한 2개월, 3개월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나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저희들이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좋아요. 그러면 2008년에 절충교역 등 예산이 아닌 걸로 기술연수든 교육이든 나가 있는 사람들의 인원과 소속과 어느 사업의 절충교역에서 나갔는지 그다음에 나간 기간 그거를 좀 파악을…… 파악을 방사청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절충교역을 한 결과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거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이 국외사업관리요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방만하고 규모도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이 장기간, 6개월 이상이면 파악이 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그 쪽하고 사업별로 직접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상을 하면서 단기간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규백 위원 아, 이게 1년이나 6개월이 아니고 사업이 있을 그 텀(term)만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지금 이거 국외사업관리요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닙니다. 절충교역으로 나가는 인원은 그렇고 사업관리요원 이것은 장기간—2년, 3년—이렇게 나가고 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사업관리요원은 현재 21명이 나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강석호 28명인데 현재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군수무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를 하고, 왜냐하면 미 정부하고도 일부 협력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金玉伊 委員 계급 수준이, 예를 들어 독일에는 몇 급이 나가 있나요? 현역이 나가 있나요, 아니면 군무원이 나가 있나요?

○안규백 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사업도 채근도 하고 그 업자들도 만나고 상당히 순기능적 일을 많이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가서 일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小委員長 劉承旼 미국에 나가 있는 군수무관만 11명이라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군수가 아닌 무관들은 더 있는 거지요, 지금?

○金玉伊 委員 국방무관이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예, 국방무관……

○小委員長 劉承旼 더 있는 거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군수무관만 11명 나가 있으면 이분들은 공관에 근무합니까, 군수무관이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대사관에 소속되어 있고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국에 있는 사업현장에, 국외사업관리요원들이 나가 있는 그 현장에는 평소에는 갈 수도 없겠네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기 어렵습니다.

○서종표 위원 군수무관은 통제를 어디에서 해요? 국방부 군수국에서 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군수무관도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업무상으로는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 어떤 지휘계통은 국방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옛날에 국방무관은 정보본부 통제를 받았는데 군수무관이 생긴 때에는, 방사청이 생기기 전에 군수무관들이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방사청이 생겼으니까 방사청에서 사업관리요원을 또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무관하고 방사청에서 보내는 사업관리요원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휘체계를 일치시켜 줘야 돼요. 일치시켜서, 거리가 멀지만 유선으로 다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지휘체계를 일치시켜 주지 않으면 이중적인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관리요원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인원은, 가령 조기경보통제기사업 관련해 가지고 본사에 지금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 관련된 특수한 협조사항만 사업관리요원이 하고 있고 현재 군수무관은 대사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적인 모든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직접 미 정부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관리요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업관리요원 통제는 방위사업청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사업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본부(IPT)팀에서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청의 사업관리본부의 통제를……

○서종표 위원 밑에 다 나가더라도 어디에서……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제가 될 것 아닙니까? 통제가 안 돼요?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거기에서 군수무관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무관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대응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무관은, 우리가 무기체계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70~80%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후속 군수지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11명이 가 있고 사업관리요원은 프로젝트별로 그 프로젝트 끝나면 다 들어옵니다.

○안규백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래서 오버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즉 독일 같은 데는 군수무관 1명, 영국도 1명, 프랑스 1명, 러시아 1명 이렇게 우리가 해외로부터 무기체계가 들어오는 나라에 군수무관이 후속 군수지원 때문에 나가 있는데 사업관리요원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기에 우리 KAI의 항공기 생산하는 현장감독요원, 이런 개념으로 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특별히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도개선에 관한 거니까요.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군수무관이,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요원이 어디에 몇 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것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군수무관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관장은 하나 봐요?

○서종표 위원 그렇다면 어떤 지휘 관계를 링크해야지. 방사청이 새로 생김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앞으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통합해 주어야지.

○안규백 위원 선정 기준과 파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셨겠지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이런 것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됐습니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외군수무관부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주외군수무관부의 연구개발비 5억 원이 위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집행된 문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외교통상부 소속 주미참사관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사무를 위탁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집행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金玉伊 委員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을 5억이나 썼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 자료라고 올려놓은 것 제가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얼마 쓰는 거지요? 5억 원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5억 원 예산인데 실제 집행은 4억 원 조금 넘게 집행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5억 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비는 5만 불하고 2만 불하고 7만 불이네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월로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토털 달러는 얼만데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토털 40만 불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40만 불 쓴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12만 3000불이 남고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여기 첨부한 편지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국회에 한 보고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무슨 용역을 한 것 같이 되어 있던데 용역을 한 겁니까? 40만 불이 전부 다 로비 비용입니까? 로비사한테 지급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전략자문사를 운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Loeffler하고 Scribe하고 두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전략자문회사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워싱턴에 있는 로비스트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40만 불을 주고 FMS 통과되도록 해 달라 그게 다지요? 이 사람들이 결과물을 제출하고 이런 거 없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런 것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수석전문위원, 처음에 여기 무슨 용역을 했다고 적어놨어요? 이 용역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용역사 주요 활동' 이래 가지고 FMS 본회의 통과를 위한 법률안 연구라는 이게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자문용역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로비라는 예산 명목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문용역으로 해 가지고……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이 이렇게 미국에다가 로비용으로 예산을 한 전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없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처음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처음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앞으로도 로비예산은 전부 다 방사청에서 나갑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이 사항은……

○小委員長 劉承旼 보세요. 방사청이 갖고 온 자료를 봐도 07년 11월에 주미대사가 국방부장관한테 자문용역예산 반영 요청, 이것 로비예산이지요. 로비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랬는데 이때 07년 11월이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방사청 예산으로 잡혔습니까? 기재부가 반대해서 방사청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써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방사청이 FMS 이런 것도 그렇고 무기 때문에 만약에 로비를 해야 되면 전부 다 방사청 예산으로 잡을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 당시에는 11월 달에 맨 처음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뒤라서 기재부하고 협의 결과 이때만은 일단 방위사업청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부처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 의견은 이런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주장은 뭐였습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입니다.

당시에 방위사업청에서는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주미대사관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예산이 국회에 제시된 상태이고 완성되어가는 그러 한 상황이고 별도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방위사업청에서 일정 예산을 염출해서 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은 당시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 간에 협의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단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염출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3부 장관 간에 합의가 돼서 후속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행정착오가 아니고 묵인 방조구먼.

○金玉伊 委員 이게 장관들 권한이에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당시에 여러 가지 시간은 급하고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일단은 장관님들 선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셨고 그 이후에 후속절차에 대해서 기재부도 검토를 했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金玉伊 委員 국회를 속이게 된 게 되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속인 것은 아닙니다.

○金玉伊 委員 국회를 속이고 장관들이 임의로 합의해서 예산 전용해도 되는 건가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전용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규백 위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거네요.

○金玉伊 委員 그러니까 현재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방사청의 입장은 어떠세요?

○小委員長 劉承旼 이 예산이 돈주머니는 방사청에서 나가고 집행은 미국의 주미대사관이 하고, 그러니까 외교부가 하고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닙니다. 계약까지만 저희들이 외통부에서 해 달라고 위탁을 했고 예산은 외통부로 안 넘겼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그 돈은 방사청 예산에서 나갔지만 계약을 하고 이것을 직접 로비스트들한테 준 것은 외교부 아닙니까? 방사청이 거기에 개입 안 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저희들은 예산만……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은 돈만 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체를 Loeffler사하고 Scribe사 두 회사를 정하고 로비스트들한테 돈을 월 5만 불씩, 2만 불씩 주고 한 것은 전부 외교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방사청은 돈만 내고 그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 예산이 로비스트들한테 가 가지고 그게 의회 활동에 사용됐는지 점검 안 하셨지요? 아무도 점검 안 했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Loeffler하고 Scribe 이 두 회사가 돈 40만 불, 5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됐는지를 누가 점검하고 누가 알아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FMS를 NATO 플러스 일본 수준으로 격상시키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小委員長 劉承旼 결과가 좋았으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오래 전부터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의회 보좌관 이쪽에서도 막히고 여러 군데 막히니까 정부에서 외교부하고 해서 로비스트를 고용하자 해 가지고 다행히 이게 허비가 안 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로비활동을 했다 했고……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그게 부시 정권 말기인데 FMS 그 결과가 좋았던 게 로비를 해서 좋았는지 가만히 놔둬도 좋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미 군수무관 라인이랑 전부 접촉을 했다는……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점검을 했느냐 그겁니다.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 소속 주미대사관의 참사관, 제가 이름은 잊어 먹었습니다마는 그 로비스트 즉 전략자문회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임무가 거기에 부여가 됐습니다. 부여가 돼서 그 주미대사관 요원이 전략자문회사와 직접 밀착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직접 듣고 또 방향도 같이 제시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이게 40만 불이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그 가격은……

○小委員長 劉承旼 워싱턴에서 40만 불이면 저는 굉장히 큰 돈으로 알아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매달 10만 불씩 3개월 하고 또 1개 업체가 추가돼서 10만 불 해서 40만 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방사청은 앞으로 무슨 로비할 일 있으면 계속 돈만 내놓고 그 돈을 갖고 가 가지고 쓰고 폼 잡고 하는 것은 외교부가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지극히 뭐가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07년 11월이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방사청이 당시에 버티기만 하면 외교부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방사청이 무슨 봉입니까, 이렇게 하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당시에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하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외교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 외교부에……

○小委員長 劉承旼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서 받은 문건은 이게 다입니까? 저한테 주신 게 이게 다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이 확인을……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 사이에 여러 주미군수무관단하고 외통부하고 대사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40만 불을 주고 나서 로비스트가 어떻게 활동했다는 일지 같은 게 다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 부분은 대사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小委員長 劉承旼 대사관에서 안 받았어요, 그런 것을? 돈 내고 뭐하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일부 확인한 사항은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여러 가지 활동을……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 일지 같은 게 있냐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FMS가 통과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다는 일지나 이런 게 확인된 활동 내역이 다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입니다.

실제로 그 업무 자체를 주미대사관 의회과에서 계약사 선정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 중간 중간에 저희 방위사업청 군수무관부를 통해서 필요한 경비를 5만 불, 2만 불 해서 매월 7만 불씩 5개월 줬습니다. 줬는데 그 사이에 주미대사관 의회과에서 저희 군수무관부로 활동내역을 중간 중간 전문으로 보고한 내용은 일부 있습니다. 일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는……

○小委員長 劉承旼 여기에 관련돼서 방사청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돈을 40만 불을 써 놓고…… 방사청은 무슨 눈먼 장님 같이 40만 불 주고 그 돈을 계약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부이고 그 돈이 어떻게, 40만 불 가지고 술을 마셨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도대체 뭘 알아야지 결산을 하지요.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 굉장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40만 불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나는 이 40만 불이라는 게 도대체 왜 40만 불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FMS라는 게 워싱턴에서 통과될 만한 분위기가 돼서 통과가 된 것 같이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사청이 방사청 예산으로 40만 불 써 가지고 외교부가 이런 로비를 해 가지고 된 줄은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언론에 보도도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이게 중요한 전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주미대사관에 연락해서 당시의 활동일지 같은 게 있는지, 너희 40만 불 다 어디에 썼는지…… 돈 낸 사람이 그 정도는 확인해야지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돈만 내고 가만히 있

는 방사청도 이상하지요.

차장님, 그 자료 좀 모아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제가 오늘 받은 자료는 꼼꼼히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이것 편지 몇 장 왔다갔다 하고 정부가 만든 공문 한 장짜리 몇 장 가지고, 이것 가지고 40만 불을 쓴 증빙자료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납득이 안 돼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이 갖고 있는 자료 플러스 주미대사관에 연락해서 이 40만 불 우리 결산 때 자료 요구받았다 그러시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다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 말고 일부는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일부 있으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일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쪽으로 접촉을 해서……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군수무관이 매달 7만 불 주는 단순히 돈 주는 기능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와 가지고 주미대사관 의회과—미국 의회 담당하는 사람들인 모양이지요?—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우리 외교관들이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뭘 알아야지 결산을 하지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대사관에다가.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제 의견은 그 정도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金玉伊 委員 당시 방사청의 실무자는 누구예요? 지금도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주미 군수무관단한테 우리가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군수무관단하고 대사관하고 주로 많이 왔다갔다 업무가 협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金玉伊 委員 방사청장은 지난번의 양치규……

○小委員長 劉承旼 07년 말 일이니까 노무현 정권 마지막 방사청장.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이선희 청장님 계실 때 이 일이 시작이 돼서 양치규 청장님 임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金玉伊 委員 그러면 당시 국방부장관은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김장수 장관님……

○金玉伊 委員 김장수 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小委員長 劉承旼 기재부하고 외교부하고 방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까지는 김장수 장관이 하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예산 부분은 그 당시에는 부득이 이것도 연말이었기 때문에 저희 청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은 외통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마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전략자문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대사관에서도 자기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사한 협약을 해 가지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해외무기 구입할 때 로비스트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조사를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국방부나 우리 같은 방사청 이런 국방 쪽 예산으로 그런 로비를 직접 하는지…… 저는 이것은 당연히 외교부 예산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네 번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보완대책 마련입니다.

작년도에 전용 1359억의 거의 80% 가까이가 환차손 보전 목적이었고 금년 추경 또한 그 목적이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예산집행 애로가 많다, 그래서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체토론 과정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어제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 환차손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나요, 뭘 했나요? 어제 결과가?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상당히 논의를 하다가 어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주의 아니었어요?

○小委員長 劉承旼 주의로 했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주의로 낮췄습니까?

○小委員長 劉承旼 주의로 한 것 아니에요? 왜

냐하면 국방부에 주의를 하고 여기에 또 다른 것을 하는 게 좀 이상해요, 같은 환차손인데.

○안규백 위원 그렇지요.

○小委員長 劉承旼 어제 국방부 정리한 것 가져와 보지요. 이것은 똑같은 환차손 문제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 청에서는 환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달에 기재부에 직접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선물옵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보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주요 용역 내용을 보면 앞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외화로 하지 말고 원화로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원화 계약을 하자든지 아니면 선물옵션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小委員長 劉承旼 그 용역을 누가 어디에서 했어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동수 계획지원부장입니다.

FX코어솔루션에서 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FX코어솔루션이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동수 예.

○小委員長 劉承旼 민간회사입니까?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동수 용역 2858만 원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용역 결과 중에 예컨대 원화 계약을 한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 원화 계약을 해외에서 하려고 그래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동수 사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지금 현재 외화 중에서 국내의 일부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이라도 국내 업체에 드는 돈이기 때문에 원화로 하게 된다면 외화 환율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용역 최종보고서는 다 나왔습니까?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위원님들 관심 있으시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안규백 위원 국내 업체도 달러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나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국내 업체는 원화로 합니다. 국내 업체가 주 계약업체면 원화로 하는데 해외 업체가 주 계약업체라 할지라도 일부 들어가는 구성품 부품을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화로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金玉伊 委員 지금까지는 달러로 했고?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환차손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하고 비슷한 의견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요. 방사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환리스크 보완대책 같은 것은 방사청이 나중에 업무보고 자기들이 분명히 할 테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안규백 위원 예, 좋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5번, 제기된 소요의 조기 사업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5번입니다.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 보강사업과 관련돼서 소요가 10여 년 전인 96년에 제기되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08년도에 너무 늦게 추진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의 소요 제기 및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군에서 소요 제기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서면질의

가 있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소요 제기했다가 안 되고 막 늦어지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결국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사청 의견 있으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이 부분도 사실은 96년도에 소요가 제기됐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유보가 됐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유보가 됐다가 0509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06년도에 저희 청이 만들어지면서 공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받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기된 소요가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군하고 합참하고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규백 위원 이것은 합참의 결재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합참에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예, 그때까지 합참에서 제기가 안 된 겁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다음 5페이지.

6번, 정보통신분야 기술진부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정보통신분야 기술진부화 방지 필요성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전력화의 경우에 전력화 단계까지 11년이 넘는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성능개량도 그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도 상용기술 분야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서면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동의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화적 개발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별로 나가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기술을 직접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현재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동의를 하신다면 탐색개발부터 전력화까지 우리는 11년 반이 걸리는데 선진국은 18개월, 이게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진화적 개발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맞느냐고요. 이것을 팩트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선진국은 1년 반밖에 안 걸리는 게 우리는 11년 반이 걸린다는 게 이게 맞느냐고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탐색개발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기간이 짧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맨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그 기술 그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성능개량을 통하면서 마지막 전력화까지는 그렇게 걸리지만 중간 중간에 발전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된 기술이 딱 완료될 때까지는 더 훨씬 짧은 기간이 들고요. 이 사업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기간이 걸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많은 상용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능개량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이것을 인정 안 하셔야지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탐색개발에서 전력화까지 11년 반이나 걸리기 때문에, 마치 정보통신기술이 핸드폰이 그냥 몇 달마다 하나씩 바뀌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11년 반 전의 기술이 11년 반 후에 전력화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기간

이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된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 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규백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전력화에 비해서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이 사항도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으로.

○金玉伊 委員 정보통신은 우리가 IT 강국인데 어느 회사들하고 이렇게 하나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각 회사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주로, 이 사항들은 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글쎄, 어느 분야에서 하느냐고요. 통신이 발달된 그런 데 안 하고 엉뚱한 중소기업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주 계약업체는 대기업체가 되고요, 일부 핵심기술은 중소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하청 주고 뭐 그러나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일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컨소시엄 비슷하게 구성해 가지고.

○金玉伊 委員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11년씩 걸리고 이래 가지고야 뭐 강산이 변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동안 발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방법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사실 일반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서 많이 줄여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최근의 사업만 본다면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아마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의 평균 기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7번 해상유도무기 전력화 시기 조정……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7번입니다.

각종 해상전력의 전력화 시기하고 전투수단인 해상유도무기의 전력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전력증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상유도무기의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체토론과 검토보고에서 각각 나왔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 전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이 관련된 사업은 한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1개 사업부에서 같이 통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100% 확보된 것은 세 가지이고 50% 확보된 것은 네 가지인데, 이게 왜 50%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본래 유도무기가 함정하고 같이 1개의 사업으로 패키지로 해서 나간다면 100% 다 확보가 되는데 유도무기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도무기사업이 1개 함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함정에 공통으로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패키지로 할 수 없는 면도 있고 또 예산도 패키지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무기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그 함정사업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현재 지적된 유도무기는……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편성 때부터 그랬단 말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편성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같이 일치가 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예산 편성 때는 무기하고 함정하고 같이 일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순연이 돼서 이게 딱 그 시기에 100% 전력화가 안 되는데 여기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길래…… 예산 편성 때는 했는데 나중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그렇단 말입니까?

이게 예산은 편성이 돼 가지고 확정까지 됐는데 함정은 빨리 짓고 무기는 도입이 지연되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지적된 것이 함대공 RAM하고 SM2인데요, 미 측에서 FMS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맨 처음에 예산이 초년도에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물량을 다 계약해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반영된 물량만큼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요청했던 사항들이 다 제 시기에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1~2년 100% 확보가 지연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SM2 같은 경우에는 미 측에서 483억을 초입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173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저희들한테 계약을 못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안규백 위원 이렇게 되면 함대만 있고 탑재가 안 되면 이것 절름발이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맞춰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규백 위원 독도함에도 공격형 헬기입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봐야지요.

뭘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항목만 많고 돈만 들어가고 임무 수행은 못하고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유도무기사업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유도무기가 그 함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함정에도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도무기만 동시에 같이 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유도무기 도입이 그렇게 늦어지면 배만 있고 무기가 없는 상태가 갈 수 있으니까 배 만드는 것도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배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같이 확보되는 걸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일부 1~2년 순연되는 경우가……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만약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그렇다면, 그러면 배 짓는 것도 연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배만 일찍 지어 놓습니까? 이지스함 그것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무기도 없는데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공 RAM이나 SM2는 함정이 진수된 후에 미사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를 최초에 확보하고 예산 관계상 합참이 소요계획상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08년도에는 한 50% 좀 넘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09년도, 2010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장 08년도에 볼 때는 한 50% 정도였지만 09년도에……

○小委員長 劉承旼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합참의 본래 소요는 전량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 당시에 도저히 그러한 소요를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조정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되면 전량 100% 확보가 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내년도에 예산이 축소되는데 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이러한 사업은 전량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해상 이것을 패키지로 해 가지고 조기에 전력화해야지 괜히 서해안에서 또 터지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세트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패키지로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함 같은 경우에도 공격이나 기동헬기 자체가 개발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개발이 늦어져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예, 현재 독도함에 기동헬기 모델을 탑재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서 기동헬기 개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독도함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합동원거리공격탄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거리에서 타격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기종 결정 지연을 이유로 해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이월되었습니다. 구매대상 기종에 대한 실험 실패로 인해서 10년에서 12년 이후로 전력화 시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돼서 조기 전력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JASSM 이것은 미국 건데, 12년에는 전력화되는 게 확실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이 사항은 미국에서 일단 양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한번 시험평가를 해 본 겁니다. 시험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이 지적돼 가지고 일단 유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2010년도 돼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우리 군이 미국의 JASSM이라는 것, 실험 실패한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꼴 비슷한데, 이것 왜 이러고 있지요? 공대지가…… 지금 장관후보자도 그렇고…… 이제 장관 됐나요?

○안규백 위원 이제 장관 됐지요?

○金玉伊 委員 아니, 오후에……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김태영 장관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이 있는 장소를 알아 가지고 사용하기 전에 때린다, 때린다고 할 때 그 때리는 수단이 뭡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JASSM 이것 말고 때리는 수단이 뭡니까? JDAM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JDAM이라든지……

○小委員長 劉承旼 JDAM하고 JASSM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GBU-24 같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뭐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JDAM하고 SLAM-ER……

○小委員長 劉承旼 SLAM-ER하고 JDAM을 갖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SLAM-ER하고 JDAM은 충분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JASSM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小委員長 劉承旼 JASSM이 SLAM-ER이나 JDAM보다 성능이 좋은 모양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원거리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더 원거리입니까?

그러면 더 필요해 가지고 이런데 1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12년 이전에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뭘 씁니까? 그러니까 12년까지는 뭘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라도?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독일의 타우러스하고 같이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켰는데, JASSM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타우러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우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들어온다면 11월 달에 계약이 가능하고 만약 안 들어온다면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차장님 말씀대로라면 타우러스를 일단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게 일이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타우러스라는 것을 할지 안 할지는 언제 결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金玉伊 委員 이것 사거리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우러스가 더 장거리 사거리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ROC가 있기 때문에 ROC가 충족이 되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 부분이 또 예산하고 맞아 줘야 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협상은 그러면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가격 협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원래 계획에는 전력화가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까?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JASSM 그것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타우러스하고 하고 있고……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만약 타우러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JASSM도 안 되고 타우러스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지금 9월 말부터 타우러스하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하고 해서 제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순연시켜 가지고 ROC를 충족시키는 다른 유도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차장님하고 말씀이 다르네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그러니까 지금 시험평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9월 중에 한다고 그러고 내년 2월 중에 다시 한번 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JASSM에 성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롭을 시키고 타우러스하고 한다는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우리 부장님 말씀은 타우러스도 성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아닙니다.

타우러스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 기술 협상도 해야 되고 조건 협상도 해야 되고, 그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면 타우러스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상 결과를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니까, 특히 가격 같은 게 지금 비싸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를 봐서 협상이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으면……

○안규백 위원 아직 비교우위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예, 그래서 지금 타우러스 쪽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래 가지고 타우러스가 실패를 하면 당초에 방사청이 ROC가 충족되는 것은 JASSM하고 타우러스 2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JASSM은 2012년까지 불확실하고 타우러스는 만약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그러면 ROC 충족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의 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현재 문제는 가격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성능은……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격이 비싸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와 줘야만 이것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한 목표가에 충족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 부분인데 만약 그 부분이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다시 사업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런 것을 보면 장관 후보자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이러는 데 결국 미군한테 의존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전부 다 우리 공군이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군은 이런 식으로 무기 하나 10년부터 전력화하기로 한 것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이상한데요.

○안규백 위원 가격이 안 맞으면 다시……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가격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안규백 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둘 다 안 되면 무엇을 할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협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결과를 보고 재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늘려서 이 사업을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성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사업비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나

면 국회에서 예산 범위를 벗어나게……

○金玉伊 委員 얼마나 차이 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이것은 13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정확한 것은 협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지금 2개 무기체계가 제안가로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JASSM은 한화로 12억 원, 타우러스는 36억 원 정도입니다. 제안 가격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수석전문위원, 이것도 엉터리네요? JASSM이 단가가 116만 달러이고 타우러스는 130만 달러 이것은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아닙니다.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유로화로 225만 유로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JASSM은 116만 달러 맞아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그렇습니다.

○金玉伊 委員 225만 유로면 달러로는 얼마예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그때 당시 환율로 하면 340만 달러 정도 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1발당 3배나 차이가 나네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예, 현재 제시된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도 그렇지 3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2009년·10년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돼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예산은 총 사업비가 204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게 연도별로 2009년·10년에 어떻게 돼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올해는 11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10억 요구해서 50억 편성됐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110억이면 타우러스 같으면 제시된 가격으로 하면 3발, 4발밖에 못 사네요?

○방위사업청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 기간 동안에 연부액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가격하고 발 수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비밀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파트 같은 것 살 때도 우리가 한 채당 1억 예산 잡아서 1500억 드려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1300세대밖에 못 사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만약 꼭 사야 되면 비싸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1발도 안 사고 계속 그냥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협상 결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특히 예산하고 많이 벗어나게 되면 소요 군하고 아니면 국방부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계속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의 기간 같은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小委員長 劉承旼 재검토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확 연기가 되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연기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하는 방안이 있고 그런 방안이 다 포함돼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런 것 보면 장관이 무엇을 믿고 바로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일부 확보된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종합적으로……

○小委員長 劉承旼 그것 일부 확보된 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니요,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추진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 북핵 대비……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북핵 대비 긴급 전력으로 제기된 바 있는 HUAV하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방사능탐지측정셋 이 3개 사업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해서 북핵 대비 전력에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玉伊 委員 방사청 입장 이야기해 보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UA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상대인 미측에서 한국에 판매할 것인가 정책적인 결심이 필요한데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대한 판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 기간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말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그동안 2개 기종이 경쟁을 하다가 1개 기종이 다시 포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9월 말에 기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이 곧 있을 예정이고요.

방사능탐지측정셋은 4종 중에서 3종은 올 3월까지 이미 각각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나머지 1종 방사능 안전복이 있는데 이것도 9월 22일에 계약이 되어서 12월 말에 전력화가 되어 올해 중으로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북한은 계속 핵실험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북핵 대비 전력화가 내년 말 이후면 불안해서 어떻게 있지요? 예산의 우선순위로 정해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최우선적으로 놓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상대측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UAV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지난 6월에 이 부분은 미측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이것도 장관의 관심사항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金玉伊 委員 장관회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小委員長 劉承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번 일출사업 편제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02보병여단을 기갑여단으로 부대 개편하는 사업은 08년도에 종료되었지만 전차 및 장갑차 등 필수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력화하고 부대 개편이 적기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수석전문위원, 이런 예는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출사업이 특별히 여기에 지적된 이유가 있나요? 편제장비가 부족한 채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 상태……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닌데요, 07년도에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를 초래한 면이 사실상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오뚜기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계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기동전력사업부장입니다.

일출사업에 대해서 최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2000년에 착수해서 2008년까지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차·장갑차는 별도 흑표전차와 K-21장갑차를 전력화하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K-21장갑차가 20사단에 가면 20사단의 장갑차가 102여단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재작년도에 K-21 보병 장갑차가 2년간 순연됨에 따라서 현재 전차는 70대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장갑차는 49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K-21장갑차가 20대가 전력화되면 그것을 20사단에 준 다음에 그 20사단의 장갑차 18대를 전환하고 내년도에 31대를 전력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대 개편과 편제장비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뚜기사업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2010년에 전력화하기 때문에 전차·장갑차 편제장비가 다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오뚜기사업이 언제까지이지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2012년까지입니다.

○김영우 위원 가능해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예, 2010년에 기계화부대가 개편되기 때문에 거기도 전차는 다 전환이 되는데 일부 장갑차가 현재 계획보다 1년 정도 순연될 계획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오뚜기사업이나 일출사업이나 전차는 지금 부족한 게 없는 모양이고 장갑차가 부족해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20사단에 있던 장갑차가 무엇입니까?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K-200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K-200을 102여단으로 돌리고……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예, 20사단은 K-21장갑차를……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분명한 것 같으니까 지나갈까요? 나중에 그것만 결정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번 편제장비사업……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편제장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장비가 편제장비사업에 포함되고 있는 바가 있고 일부 장비는 방위력개선비와 경상비에 중복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는 해군의 심해잠수구조정의 경우에는 편제장비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격상 별도의 함 건조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유조차, 항공기 견인차, 항공기 급유차, 탐조등, 진공청소차 등은 방위력개선비뿐만 아니라 경상비에도 중복 편성되어 있어서 편제장비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어제 국방부 시정요구 결론 낸 것 왜 안 가져옵니까?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안규백 위원 편제장비 예산의 중복 편성이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합동무기체계 목록서에 이게 무기체계냐 비무기체계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해 줘야 되고 비무기체계는 경상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무기체계 목록서에 보면 일부 같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무기체계, 어떤 것은 비무기체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장비명만 봐가지고는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을 명확하게 고쳐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참하고 소요 군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무기체계 목록서상의 기준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심해잠수구조정 장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기체계 목록서상에 비무기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편제장비로 해서 경상비로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방위력개선비하고 경상비의 구분 기준이 뭡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무기체계는 방위력개선비이고요……

○小委員長 劉承旼 어제 국방부 하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하는데 주둔지·탄약고·공군기지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국방부 예산을 그냥 합계만 이야기할 때는 경상경비·방위력개선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가지고 GOP는 방사청 예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무기이고 이것은 무기 아니고 주식하고 유도탄 이렇게 되면 구분이 되지만 중간에 회색지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학화경계시스템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각각 따로 국방부 안에서도 2개는 정보화 예산이고 또 하나는 무슨 군수 예산이고 GOP는 방사청 예산이고 이것은 이상해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기동전력사업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소요가 나오면 합참에서 무기체계냐 비무기체계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결정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고 합참에서 비무기체계로 결정한 것은 각 군에서 경상비로……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과학화경계시스템 같은 것은 뭐가 옳은 것입니까?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그러니까 GOP 과학화는 합참에서 무기체계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주둔지나 탄약고 여기에 대한 경계시스템은 비무기체계로 결정해서……

○小委員長 劉承旼 그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그래서 그 문제가……

○小委員長 劉承旼 주둔지나 탄약고는 대충 CCTV 수준으로 엉성하게 해도 괜찮고 GOP만 열심히 하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그래서 저희들 방위사업청에서는 그것 때문에 과거에 통합해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합참하고 계속 상의했는데 합참에서는 통합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小委員長 劉承旼 합참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예, 합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보니까 통합을 해서 전체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합참하고 협의해서 그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小委員長 劉承旼 제가 옆길로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제장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없으면 그것 지적한 걸로 하고 일단 지나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번 MS EO/IR.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2번입니다.

MS EO/IR 사업은 주관기관하고 부처의 협약체결에 의해서 예산집행 기간이 당년 10월부터 그다음해 9월까지 결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집행가능 기간이 실제로 3개월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연부액이 매년 1년치로 계산되어 있어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한 연부액 배분이 필요하겠다 하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방사청,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맨 처음에 규정상 연구기관하고 협약기간을 정할 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7월부터 그다음 해 6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약에 나와 있는 요구 예산하고 예산안 편성된 것하고 집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맞췄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의견에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동의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13번 기초연구과제.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기초연구과제 과제의 선정하고 평가의 문제입니다.

기초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서는 선정 과제 상당수가 선진국이 이미 구현한 기술의 모방을 하고 있어서 적시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초과제의 평가의 경우에는 내부 인원만으로 평가를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더라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다른 과제 수행자가 포함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과제 선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굉장히 막연한데…… 하여튼 중요하기는 한 것 같고 지적은 상당히 막연하고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체토론에 있었나요? 서면질의에 있었나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가지고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사청,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획득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진국이 이미 구현한 기술을 모방하는 과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에서는 전략 핵심기술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그 기술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와 기술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정 수준에 올라간 기술은 오픈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문제는 기초연구에 있어서 두 번 평가를 합니다. 대개 기초연구가 한 3년 정도 걸리는 과제들이 대부분인데 중간평가라고 그래서 1년 반 정도 되는 과정에 평가를 하고 마지막 단계, 3년째에서 단계전환이라고 이 과제를 앞으로 응용 연구로 계속 발전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단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평가의 경우는 이 과제가 과연 우리 목적에 맞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 위원만으로 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그동안 평가를 해 왔습니다.

단계평가는 이 과제에 대한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외부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계평가는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중간평가에 안 되어 있다는 그 부분 지적인데 방금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런 평가나 기초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구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기초연구과제라는 것은 대부분 ADD가 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ADD가 산학연을 활용해서 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중심은 하여튼 ADD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예, ADD가 과제 완료를 하고 특화연구센터, 각 대학교……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1년에 몇 건이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전체 예산은 기초연구 전체가 264억이고……

○小委員長 劉承旼 과제는 몇 개나 돼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특화연구센터가 현재 12개가 운영되고 있고……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센터 수 말고 과제 수.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개별 과제 수로는……

○小委員長 劉承旼 264억이면 몇 개 과제에 264억이에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기술 개별 과제로는 약 80개가 진행되고 있고 특화연구센터는 현재까지 12개이고 9월 달에 2개가 더 추가되어서 14개 특화연구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전부 다 ADD 안에 있습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ADD가 관리하면서 산학연, 업체나 연구소 이러한……

○小委員長 劉承旼 센터는 ADD 안에 있나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예, ADD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특화연구센터는 각 대학입니다. 전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특화연구센터로 지정되어서……

○小委員長 劉承旼 돈은 100% 예산으로 나가는 거네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부분은 내막을 잘 알기 전에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중요하긴 한데.

○안규백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예, 우선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전략 핵심기술은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에서 오픈을,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파고들어가서 저희들도 일정 수준에 달해야만 그쪽과 협상·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제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초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유 수준이 낮은 것을 가지고 지금 과제로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과제는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과제 선정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과제 선정할 때 적시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하다 보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빨리 이것을 적시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현재 방향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하늘 아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

운 무기체계는 없듯이 다 기존의, 온고이지신이라고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듯이 독창적인 우리만의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텔스 기술이 있는데 스텔스 기술은 선진국에서 그야말로 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술을 확보하려고 해도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안규백 위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금년도에 스텔스 관련 기초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화연구센터를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기초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기초연구과제의 대부분이 기술의 모방이다…… 대부분이 그래요?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장 정진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쉽게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은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는 '대부분'이 팩트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기술의 모방이라는 것은 처음에 뭐 기술, 우리 옛날에 역엔지니어링을 다 했는데 기술의 모방 안 하고 이것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기초연구과제 대부분이 선진국이 이미 구현한 기술의 모방을 위한' 이것은 이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것 같은 표현이라 가지고 이 표현을 좀 고치고 이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갑시다. 이것은 더 이상 깊이 파고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요.

○안규백 위원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어 사용을 잘 좀 하십시오.

○입법조사관 류승우 기초연구의 기본 취지가 산학연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초 인프라를 다진다는 의미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사실상 핵심기술이라든가 체계 개발에 필요한 단위 기술을 연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규백 위원 고난도가 아니고?

○입법조사관 류승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술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기술 리스트를 염출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과제가 지정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 것을 기초연구라고 그래요? 그것은 기초연구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입법조사관 류승우 원래 기초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 기초 단계를 다져 줘야 되는데……

○小委員長 劉承旼 차장님, 이런 거야말로 ADD 원장이 유능한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양반이 뭘 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과제 선정을 할 때 ADD, 기품원 여러 의견을 죽 들어 가지고 TF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하냐, 앞으로 어떤 발전 기술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들의 연구·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평가에 대한 이 부분, 내부 인원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중간평가는 일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다 현재 외부 전문가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안규백 위원 예.

○小委員長 劉承旼 14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무기체계 품질보증 업무입니다. 품질보증 업무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확인이 아니고 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업체에 의한 품질경영 시스템만으로는 품질보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품질보증 활동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도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부족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품질보증이 가능하도록 맨 처음에 초도 양산 단계, 그때 품질보증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잠깐만요, 이 내용에 동의하냐고요. 여기 팩트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완전히 업체 품질보증 평가시스템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업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으면 업체한테 맡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품보 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품질보증요원이라는 것은 방사청 직원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기술품질원이 따로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기품원 직원들 이야기지요? 이건 전부 기품원이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여기 로마숫자로 Ⅰ·Ⅱ·Ⅲ·Ⅳ형에 대해서 품질보증 방법이 이렇다, 이것은 다 사실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기품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현재 품질보증만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300여 명 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300명이 부족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300여 명인데 문제는 자꾸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요원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게 인원하고 질하고는 비례한다고 봐집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을 할 것 같으면 기품원이 뭐 하러 필요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일부 품목은 업체가 품질보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품질보증요원이 그 부분에 가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 맡기고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자체가 생산할 때부터 그런 품질보증을 다 할 수 있도록, 불량률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사실 중복 업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 맡기고, 통상 계속 양산해 왔던 품목은 어떤 품질보증시스템이 업체 나름대로 갖춰져 있다면 맡기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

○小委員長 劉承旼 업체가 하는 것 보니까 가격 같은 것은 완전히 엉터리로 제시하던데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체를 믿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맨 처음에 초대 양산하고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개발할 때는 관여를 하지만 같은 품목을 계속 양산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그 양산 때문에 업체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물론 같이 해 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인력 제한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품원 관련 업무 맞습니다. 현재 기품원이 한 4만여 개 아이템의 품질보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인력 300여명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품질보증의 등급을 자료에 드린 대로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한 Ⅰ·Ⅱ 단계 정도는 아주 단순한 품목이고 생산 공정이나 품질이 안정된 경우에는 업체 자체에 위임을 하고 Ⅲ·Ⅳ 등급 정도 되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정부 요원이 직접 파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기품원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아마 4만여 개 중에 한 80% 이상을 요원을 투입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그러면 인력을 더 보충해서 체계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늘리기에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 활동의 방향이나 효율성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小委員長 劉承旼 이 4만 개는 전부 다 무기입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지금 4만 개가 단순한 타이어나 볼트, 군이 입는 운동복부터 시작해서……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국방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가네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각 군이 쓰는 모든 물건은 다 들어갑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예,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초보단계의 품질 활동이 필요한 것은 업체에 위임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품원이 관리합니다.

○안규백 위원 실장님 말씀이라면 업체에서 그것을 불이행을 할 때는 그것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 장치가 미약하겠네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저희가 대상품목에 대해서 이것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등급을 사전에 분류를 해 가지고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정부가 개입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제도개선 정도로 해 놓고…… 이것도 기초연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국감 때 좀 깊이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까지 방사청이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분석·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이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를 계속하려면 법적 근거를 보완해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연구개발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다가 지금 임무를 맡기고 있나요,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사실은 맡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현재 맡기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만 달랑 봐 가지고 분석·평가를 할 수 없고 다른 사업을 같이 봐야 됩니다. 현재 전력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봐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대개 비문이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사업만 달랑 떼 가지고 외부 기관에 다른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처럼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방위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이 분석·평가 활동을 나름대로 해 온 것이지요.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법을 언제 내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이 청에서 방위사업법 한 3년 반 정도 운영을 해 오면서 일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처럼. 이런 사항들을 현재 저희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이나 11월 경에 개정안을……

○안규백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관이 계속 이 방위산업을 흔들어 가지고 그동안 연구를 많이 못 했을 거예요.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이 부분하고 장관이 흔든 것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안규백 위원 신경쓰다 보니까 못 한 것이지.

○小委員長 劉承旼 언제 내실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이 현재 이 개정해야 될 사항들을 죽 검토해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 법이 지난번 서종표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 개정된 그런 것 말고 올해 개정된 게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올해 일부 방위사업법령, 절충교역 부분이라든지 3월 달에 일부 보완한 게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것을 너무 강압적으로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개정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먼저 하십시오, 정기국회 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제도개선 쪽으로……

○안규백 위원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여기 있는 15개 이외

에 포함되지 않은 것 혹시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 있으십니까?

○서종표 위원 오늘 아침에 검찰 납품비리, 두산인프라코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小委員長 劉承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두산인프라코어. 대한통운은 아무 관계 없지요, 방사청하고?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두산인프라코어는 뭡니까? 아까 말씀 사적으로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PKX라고 해군 고속정에 들어가는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원가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과다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 방위사업청하고 검찰에 건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저희들한테 의뢰한 사항은 만약 이런 부정이 있다라면 부정 업체의 제지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주실래요?

그것 원가에 대해서 방사청이 발견한 것은 아니구먼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가에 관련해 가지고.

○小委員長 劉承旼 재검토해 보니까 원가를 엉터리로 써 낸 게 맞아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저희들은 원가 산정을 할 때 업체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고, 보니까 세금계산서하고 저희 원가 산정하고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마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있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제3의 업체하고…… 저희들한테 낼 때는 세금계산서를 다 완벽하게 꾸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인정을 했고요, 문제는 제보자는 그것이 이면계약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하청업체하고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하청업체하고 이면계약하는 이런 것은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 봐야만……

○小委員長 劉承旼 방사청이 원가 검증하는 그게 없어서 이런 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런데 이런 이면계약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그것이 발견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번에 흑표 원가검증 하듯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현대로템하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하고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제시한 자료의 타당성 부분을 일부는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서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방위사업청원가관리부장 김철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을병 간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안 제정을 통해서 신의계약 성실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을병 간의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이런……

○小委員長 劉承旼 내부자 고발이 있으면 이면계약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원가관리부장 김철수 검찰에서 강제수사권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방사청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면계약 제보가 들어와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방사청은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원가관리부장 김철수 현재는 저희는 법적으로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방사청은 이것을 못 밝히네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래서 검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만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서류를 다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그 흑표 원가 검증하고 난 다음에 법 개정하신다는 것 그것도 빨리 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알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흑표, 터키하고 기술 소유 계약했던 것 무산 위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맞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계약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우리가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했던 그 사항 그대로 지금 이게 나타났네요. 상황이 그래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닙니다.

○안규백 위원 당초 103억에서 78억까지 다운되다 보니까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金玉伊 委員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국내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차 흑표 기술의 터키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7월 현대로템이 터키 방산업체인 오토카와 체결한 4억 달러 규모의 한-터키 간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내 계약이 현대로템과 ADD 간에 체결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는데 이것은 하여튼 터키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네이버에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래요? 우리 작년 국감에서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 나왔는데 이건 뭐 오늘 이 사항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염려했던 그대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지금 불발이 난 것처럼……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원가 검증하고 나 가지고 단가가 너무 낮아지니까 현대로템이 지금 안 하겠다고 뒤로 빼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항은 터키에 수출했던 그 부분에 대한 계약 관련 사항이고요.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보도가?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무산 위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이거 알고 계세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로템이 터키의 OTOKAR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 내에는 우리가 K-2 기술을, 다는 아닙니다. K-2 이전 승인을 한 그 기술을 로템이 국과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터키에 주면 터키는 그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 고유의 전차를 만들고 자기 고유의 TDP를 생성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소유권이 터키에 있고 하다는 것이 로템하고 터키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로템은 우리 ADD와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터키에 줘야 되기 때문에 국과연과 로템 간에 국내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할 때 그때는 또 그 당시에 이전 계약을 하면서 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로템하고 터키하고 먼저 되고 그 이후에 ADD하고 로템하고 국내에서 기술 이전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K-2 원천기술에 대해서 터키가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수출할 때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지금 저런 기사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사업 진행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터키가 그것을 100% 지킨다고 신뢰를 하십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현재 지키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믿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터키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요청해 놓고 답장 받은 거 없죠, 아직?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답장 좀 한번 받아보이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예.

○小委員長 劉承旼 자, 그건 또 국감 때…… 이 안에 들어갈 아이템은 아니니까.

서 위원님,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뭐 혹시 결산하고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종표 위원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小委員長 劉承旼 그리고 위원님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국방부 시정요구할 때 과학화 경계시스템 그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방부에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 우리가 전체회의에 넘길 자료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사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걸 접할 때는 GOP를 주로 접했어요, 5사단. 그래서 그거는 방사청 예산인데 어제 국방부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둔지, 탄약고 뭐 이런 거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합참이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 시정요구로 들어가 있는 게 1차적으로 맞긴 한데 여기서는 뭐 따로 넣을 필요 없겠죠, 방사청에?

어떻게 할까요?

○안규백 위원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옥이 위원님 그렇죠?

○金玉伊 委員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럼 그건 빼고요.

다른 추가의견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사청 차장님하고 잠시만 나가 계시면 저희들이 시정요구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심의를 하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11시 15분이니까 이 15개에 대한 결론을 좀 냅시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야죠?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小委員長 劉承旼 1번부터 하시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참고로 해 온 안이, 안은 다 돌렸습니까? 지금 돌려주십시오.

1번 미수납 과다현상 해소, 이거 어떡할까요?

주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의로 하고요.

국외사업관리요원 운용기준 설정은 제도개선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외군수무관부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안규백 위원 주의로 해야 되겠네, 이것도.

○小委員長 劉承旼 주의 괜찮겠습니까?

○金玉伊 委員 징계해야 되겠구만 뭐.

○서종표 위원 이건 상당히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小委員長 劉承旼 저는 이것은 시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되면 우리가 시정이라고 지금 받아놔야지 나중에 방사청이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외교부에 다시 우리는 그런 예산 못한다라고 버티지 주의는 좀 약한 것 같아요.

○金玉伊 委員 징계해야 되겠구만, 위원장님 발언이신데.

○小委員長 劉承旼 징계까지는…… 징계하면 우리는 또 김장수 장관님도 계시고.

시정 정도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아까 거론된 게 상당히 비중 있게 거론됐기 때문에 시정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우리 수석이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小委員長 劉承旼 그다음에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보완, 이거는 국방부하고 동일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환차손 문제니까. 국방부 우리 주의 했거든요. 그대로 주의 하시죠.

제기된 소요의 조기 사업화 방안 마련, 이건 어떡할까요?

이게 소요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해군인가? 해군이 아니고 이거는 뭔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아까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가 96년도에 소요 제기됐는데 08년도에 착수했다 그 내용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정보통신분야 기술진부화, 이것도 이게 빨리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小委員長 劉承旼 이거 2개를 어떡할까요?

○서종표 위원 그런데 정보통신분야 이거는 11년 동안 사실 말을 안 했지만 국방부에서 돈만 왕창 쳐 먹고 작품이 나온 것이 없어, 작품이.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강력하게 좀 해 주셨으면……

○小委員長 劉承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1년 반인데 우리는 11년 반이 걸려 갖고 뭐 아무것도 성과가 없고 이런 것은……

○안규백 위원 시정으로 해, 시정으로.

○金玉伊 委員 방사청은 혼을 많이 내야 돼. 아니 경각심을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사고도 자꾸 나는데.

○안규백 위원 방사청에서 사고 나가니 다 다른

데서……

○金玉伊 委員 어쨌든 이게……

○서종표 위원 소요 제기 이것은 몰라도 6번은 좀 강력하게……

○안규백 위원 시정으로 하시죠.

○小委員長 劉承旼 5번은 주의, 6번은 시정.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그런데 위원장님, 5번은 사실 행정부 잘못이 아닌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방사청 잘못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소요 제기하고 추진이 늦은 걸……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5번은 뺄까요?

○안규백 위원 뺍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5번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럼 5번은 뺍시다.

5번 빼고 6번은 시정.

7번 해상유도무기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 이거는 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했다는데 그냥 주의 정도 아닙니까?

주의 정도 하시고요.

합동원거리 공격탄 사업의 조속한……

JASSM 아까 그겁니다, JASSM하고 타우러스라고 하는.

저는 이거는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물론 뭐 답답하죠, 방사청 입장에서 콘트롤 안 되는 변수가 있긴 한데.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또 주의를 줘야 될 것 같고.

○서종표 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독촉을 하게 되면 미국 같은 데서 비싸게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김영우 위원 진행 중이니까 주의 정도 주죠.

○小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주의 하시죠.

북핵대비 전력의 조속한 추진 필요, 이거는요?

○안규백 위원 이거는 시정으로 했는데?

○小委員長 劉承旼 이거 예산을 타 갖고 가서 완전히 집행이 그냥 10%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안규백 위원 이건 시정하시죠.

○小委員長 劉承旼 시정하시죠.

일출사업 편제장비 보강, 이것은……

○안규백 위원 이건 빼죠.

○小委員長 劉承旼 빼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형편이 사정이 들어보니까 빼도 되겠고.

편제장비사업 대상장비 기준 재정립, 이거는 제도개선 그대로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MS EO/IR 예산편성방식 개선.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산이 3개월짜리라는 내용입니다. 3개월밖에 집행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거는 시정하기에는 좀 사소한 문제 아니었나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가 2010년도 예산에는 3개월로 반영이 되어서 지금 넘어왔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小委員長 劉承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09년도까지는 1년치를 해왔고, 사실상 의견이 지금 반영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金玉伊 委員 시정을 했다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뺍시다.

기초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방식, 이건 제도개선 아닙니까?

13, 14, 15는 그냥 3개 다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로 결론내고,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차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한 의견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미수납 과다현상 해소는 주의, 2번 국외사업관리요원 운용기준 설정은 제도개선, 3번 주외군수무관부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은 시정, 4번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보완 대책 마련은 주의, 5번 제기된 소요의 조기 사업화 방안 마련은 빼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6번 정보통신분야 기술진부화 방지 필요는 시정, 7번 해상유도무기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는 주의, 8번 합동원거리 공격탄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는 주의, 9번 북핵대비 전력의 조속한 추진 필요는 시정, 10번 일출사업 관련은 삭제하겠습니다. 11번 편제장비사업 대상장비 기준 재정립은 제도개선, 12번 MS EO/IR 예산편성방식 개선은 삭제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13번, 14번, 15번 기초연구하고 품질보증하고 연구개발 분석·평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장님 혹시 이 시정요구서에 대한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지금 1번의 미수납 과다현상 해소 부분은 사실 올해에도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많지만 이건 업체별 사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어떤 채권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게 수납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재산조사 확대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小委員長 劉承旼 그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니까 주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이 부분은 저희들을 좀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안 했다면 똑같이 해 왔다면 저희들이 이건 뭐 하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제도개선 과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건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이게 지금 08년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작년의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2009년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예, 작년도에도 거기 보시면 07년도에 비해서 미수납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320억에서 160억. 물론 일부 어떤 그냥 소분야별로 나누면 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많이 줄어들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小委員長 劉承旼 이거는 우리가 방사청하고 시정요구수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지금 그 의견을 그냥 참작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미수납이 그래도 여전히 잔고가 남아 있고 또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거고 방사청이 그런 노력을 올해에 특히 열심히 하셨다면 그거는 올해 결산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테니까 주의로 그냥 가시지요.

다른 것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아니, 지금 저희들이……

○小委員長 劉承旼 제가 괜히 마이크를 드렸더니 1번부터 시작해서 죽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특별히……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4번도 마찬가지로요. 환리스크 관리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小委員長 劉承旼 그거는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기재부에…… 이걸 주의도 안 받으면 기재부에다 대고 무슨 근거로 요구를 하실 겁니까? 이건 주의 받았으니까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기재부에다 대고 '환차손이 어떻게 우리 책임이냐, 정부 예비비로 다 이거는 해 달라, 그 대신에 환차익이 발생하면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런데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주의'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관심을 안 기울인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小委員長 劉承旼 법에는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다 대고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그걸 요구를 하시라니까 왜……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위원장님, 6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해당 사업부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이거는 지금 해명을 하는 자료는 아니고 저희 위원들의 판단이고 위원님들의 판단이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질 문제기 때문에……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간략하게 하세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이런 진부화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진화적 단계로 가자, 왜냐하면 무전기 같은 것이 동일하게 10년을 전력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화적 단계로 가자고 다 바꾸었고 탐색개발·체계개발에 관한 것을 이제는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과 통합하는 걸로 다 규정을 바꿔 가지고, 현재 모든 사업은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을 해 갖고, 일반 상용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작

년도에 국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거 09년 이야기지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아닙니다. 08년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08년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예, 07년도 국정감사 시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은 현재 다 규정까지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기간이 08년, 09년, 010년, 011년까지 되어 있고 총사업비도 수천억으로 엄청난 규모고……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90년대부터 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그 계획대로 가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부화와, 개발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렇게 지금 제도를 다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러니까 위원장님, 기간이 길다는 것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면서 진화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GOP 경계시스템도 전 사단으로 하면 엄청나게 길지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성능개량을 하면서 계속 진화적 방법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념……

○金玉伊 委員 선진국은 어떻게 18개월 만에……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그러니까 작은 사업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저희들 개발기간은, 현재 외국도 한 3년 정도 걸리고 저희들도 3년 내에 지금 모든 것을 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에 대해서 편제장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체계냐 비무기체계냐는 합참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참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합참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6번하고 11번……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윤창옥 6번은 그대로 되고 있고 좀 제외해 주시면 되고 11번은 합참 제도개선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편제장비사업 이거를 합참이 결정을 하지만 그러면 방사청은 이런 것 의논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저희들도 의견은 개진합니다.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할 때 방위사업청에서 의견을 주는데 결정은…… 합참에서 결정할 때 어떤 한국 유류차도 작은 것 큰 것 이거를 무기체계·비무기체계로 분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이거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하면 오히려 합참도 더 관심을 갖고 방사청이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도움이 안 될까요, 오히려 이 근거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金玉伊 委員 그게 낫지 않나,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그런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합니다.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협조는 합니다만, 협조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는 합니다마는……

○小委員長 劉承旼 편제장비사업 이 11번 전체를 그러면 국방부로 돌리면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를 할 때 시정요구내용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수준 뭐뭐 하고 다음에 조치대상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대상 기관을 방사청이 아니고 합참으로 지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게 합시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국방부는 어제 의결을 해 버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없고……

○안규백 위원 11번은 그렇게 하고 6번은 그러면……

○小委員長 劉承旼 6번은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6번을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지금 다 하고 있는……

○小委員長 劉承旼 시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2007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 이 사항을 보고를 다 드려 가지고……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진짜 한번 파 볼까요?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이거 6번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사업기간, 총 사업비가 수천억씩 든 이 사업이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이 사항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야 되지만……

○小委員長 劉承旼 무슨 제도개선……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6번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시정한다라면 기존 사항을 좀 바꿔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제도개선'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더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6번 정보통신분야 기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시정'으로 결정을, 합의를 했잖아요.

○안규백 위원 그래서 요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화 단계가 텀이 상당히 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지금?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개발 기간만 선정한 거고 저희는 개발 끝나서 시험평가와 야전부대에까지 다 전력화하는 기간을 총 포함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의 FM 무전기 같은 경우는 개발이 4년 만에 끝났지만 전력화하는 데 10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여기에서 좀 있습니다, 외국과의 비교가.

○안규백 위원 '주의'로 합시다.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안규백 위원 '주의'로 합시다. 말에 근거가 있네.

○小委員長 劉承旼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주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더 이상 없으시면 방위사업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되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조정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통과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 차장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정순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 차장 및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영우 김옥이 서종표 안규백
유승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전문위원	이규담

○정부측 참석자

방위사업청

차장	정순목
기획조정관	윤창옥
획득기획국장	정진택
방산진흥국장	최창곤
계획운영부장	강석호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장	채홍필
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항공기사업부장	박신규
무기체계계약부장	김용환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	최차규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남승우
계획지원부장	김동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관리실장	이 효 종
국방기술품질원 기획조정부장	최 선 규